

영광군, 어린대하 방류로 수산자원 조성에 박차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종자 1280만 마리 칠산해역 방류 “지속적 방류 통해 수산자원 회복·어업인 소득증대 힘쓸 것”

영광군은 연안해역의 수산자원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어업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어린 대하 1,280만 마리를 지난 19일 영광군 칠산해역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대하는 평균 크기 1.2cm 이상으로 서·남해안에서 서식한 새우류 중 가장 크며 연안에서 멀리 이동하지 않는 정착성 어류로 방류 효과가 매우 높고, 올해 가을쯤 상품 가치가 있는 15cm 정도로 성장해 지역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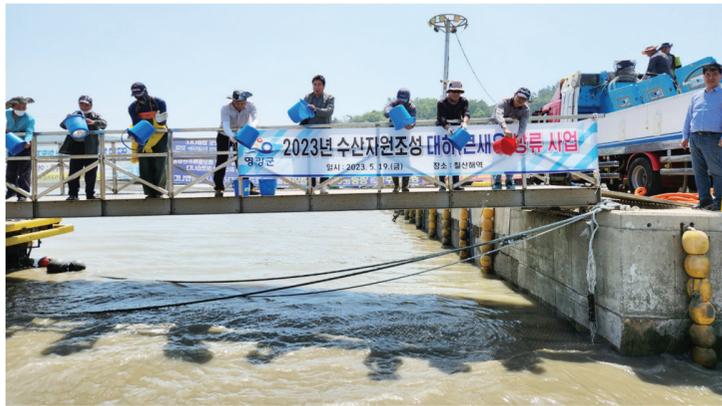
또한, 대하는 고단백, 무기질, 키토산 등 영양분이 풍부하고 맛 또한 훌륭해서 가을철 인기

기 제철 음식으로 소비자들의 수요가 매우 높다.

영광군 관계자는 “어장의 환경변화 및 남획 등으로 인해 수산자원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우량 수산 종자의 지속적인 방류를 통해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역 어업인들은 “방류를 한 다음 해에는 어업 생산량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면서,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건강한 수산 종자의 지속적인 방류를 건의했다.

한편, 영광군은 칠산해역에 감성돔 13만마, 보리새우 130만마 등을 추가 방류할 예정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어종을 지속적으로 방류하여 수산자원 조성하고 어업생산력에 앞장설 계획이다. 영광=서희권기자



‘영암군 일자리 박람회’에 청년 등 구직자 북적 79개 업체에 400여 명 몰려

전남 서남권 경제 중심지 영암이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의 취업 열기로 북적였다.

영암군이 지난 18일, 삼호종합문화센터에서 ‘2023년 영암군 일자리 박람회’를 열었다.

이날 박람회는 군민의 일자리를 지역·주민·기업 등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민선8기 영암군의 ‘영암형 취직사회책임제’를 실현하는 장. 영암군이 독자적으로 일자리 박람회를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장에는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 등 400여 명의 구직자가 찾았고, 조선·의료보건·사무·서비스 기업 등 79개 구인업체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여기에 영암군은 취·창업자들을 위해 VR 직업 체험, 이·미용 서비스, 증명사진 촬영, 입사 지원서 컨설팅, 취업타로 상담 등 부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박람회 홍보관에는 현대상호중공업, 영암새일센터, 전남인력개발원, 목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영암군행복한가정상담센터 등이 부스를 열었다.

영암=조대호기자



무안군, 초의선사 탄생 기념 초의선사 탄생문화제 성료

무안군은 지난 20일 초의선사탄생지 일원에서 조선시대 다도의 부흥을 이끈 다성(茶聖) 초의선사의 탄생 제237주년을 기념하는 초의선사탄생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번 문화제는 코로나19로 그동안 간소하게 치러졌던 문화제와 달리 기획 단계부터 학생, 어린이, 청년 등 모든 계층의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연, 강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 청년 베틀시장 등을 구성해 추진했다.

무안=이기성기자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식품시험검사기관 재지정

2026년 5월까지 3년간...국가공인시험기관 지정 연구기술력 인정 큰 의미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이사장 박홍률)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식품시험검사기관으로 재지정됐다.

이로써 2026년 5월까지 3년간 식품검사 기관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식품시험검사기관이란 「식품 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행기관을 지정해 제조, 가공되는 식품 등이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 시험 검사를 하는 곳이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7월 식품시험 검사 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더욱 까다로운 시험기준과 연구자의 숙련도 등을 종합해 평가하고 있다.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가 엄격해진 기준에도 국가 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대외적인 신인도를 높였다는데에 큰 의미를 두게 될 수 있게 됐다.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는 지난 2020년 식품시험검사기관으로 처음 지정됐다.

현재까지 식품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서 815건 시료에 대해 1,871건이 넘는 검사 항목을 분석했고, 기업의 품질규격 및 품질관리, 성분분석을 통해 지역 식품산업 업체들이 개발한 신제품의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안전성 확보하는데 노력해 왔다.

이외에도 수산식품지원센터 운영 이력으로 그동안 축적해온 역량과 인프라를 바

탕으로 지난해 12월 국내 최초로 해양수산부로부터 김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또한, 덴마크 대사관 초청으로 덴마크 국립공과대학 식품연구소와 북유럽 해조류 컨퍼런스 참여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수산 식품사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지원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식품시험검사기관 재지정된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는 앞으로 자가품질검사 항목인 중금속 등 이화확분야 38개 항목과 대장균 등 미생물분야 32개 항목의 총 70개 항목을 검사한다.

지역의 식품 제조 가공업체들은 광주 또는 나주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어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큰 이익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가품질검사 위탁검사 항목과 절차는 수산식품지원센터 연구기획팀(061-276-1671)으로 문의하거나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장은 “이번 검사기관 재지정은 목포의 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 “수산식품지원센터가 목포를 세계 제1의 수산식품도시로 이끄는 선도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신안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 역량강화 교육 진행

신안군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및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1004선 힐링 역량강화 교육을 5월 19일부터 시작하여 4회에 걸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4개소 360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력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섬 꽃 축제와 관광명소 탐방 등 힐링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진행될 예정

이다.

이에, 1차 교육은 지난 19일(금) 안좌면 퍼플섬 일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85명을 대상으로 1004선 힐링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교육에 참석한 종사자들은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힐링과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다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덕주기자



함평군, ‘내 가게 앞 주차 안 하기’ 캠페인 실시

함평경찰서와 함께 전개

함평군이 함평경찰서와 함께 ‘내 가게 앞 주차 안 하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22일 군에 따르면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난 19일 읍 시가지 상인들을 대상으로 ‘내 가게 앞 주차 안 하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군은 상가 이용객과 군민들의 교통 편의 증

진을 위해 상인들에게 함평읍 내 공영주차장 이용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공영주차장 이용하기’, ‘장기 주차 안 하기’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지과 홍보물품을 제작해 나눠 주며 캠페인 동참을 격려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함평읍 내 교통난 해소로 상가 이용객 편의가 증진될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